

## 2025 국민이 함께하는 저작권 글 공모전(시)

### 제목

### 37.5도의 저작권

작품이 지닌 고유한 온도  
창작자의 숨결이 스민  
눈에 보이지 않는 온기

누군가 문장을 베껴 쓰면  
글의 온기는 저절로 식어  
차가운 껍데기만 남는다

저작권이란  
37.5도의 온기를 지키는 태양  
햇살 아래서만 드러나는  
창작자의 기나긴 발자국

모방자는 글자를 훔쳐 가지만  
그 온기까지는 뺏어갈 수 없다  
독자들은 느낄 수 있다  
진정한 작품 속에는  
살아 숨 쉬는 온기가 있다는 것을

온기가 깃든 문장을 쓰며  
이야기에 숨을 불어넣는다  
온기를 간직한 글이 퍼지면  
창작의 열정에 불을 지핀다  
저작권, 그것은 온기의 권리다